비트에 실린 '佛心' … 네티즌 '좋아요'

BBS 페이스북內 출가콘서트 영상 조회수 47만 회 기록

신세대 스님들이 랩 공연으로 출가 신념을 전하는 동영상이 네티즌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지난 7월 27일 BBS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올린 '쇼 미 더 붓다' 동영상이 조회수 47만 회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속 스님들은 지난 5월 동국대학교서 열린 출가 콘서트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 축하무대서 랩 공연을 펼쳤다. 법상 스님과 동국대 스님 기숙사인 백상원 사미 10여 명이 부른 힙합곡은 인기 프로듀서 그레이의 음악 '하기나 해'를 개사해 만든 '쇼 미 더 붓다(Show Me The Buddha)'다.

1분 26초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에서 스님들은 "난 내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해, 그렇게 난 길을 개척하며 직진해"라며 출가에 대한 신념을 랩으로 표현했으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팔정도'를 힘껏 외치는 등 관객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공연 내내 군무를 추고 고난도의 비트박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 대부분은 '귀엽다' '대박이다'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현재 댓글수는 5600개가 넘는다.

이번 랩 공연이 이뤄진 '출가콘서트-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은 지난 5월 26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당서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이 기획, 중계 등으로 참여한 첫 출가콘서트 공연이다.

BBS불교방송 측은 "'쇼 미 더 붓다'와 같은 젊은 층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해 SNS에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수습기자



불교방송을 통해 소개된 동국대 스님들의 '쇼 미 더 붓다' 동영상. 조회수 47만 회를 넘겼다.

한국의 명승관광지 우표로 만나요

우정사업본부 발행… 월정사 전나무길 포함

월정사 전나무길을 우표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시리즈 우표의 두 번째 묶음으로 아름다운 길이 돋보이는 여행지 4곳을 선정해 우표 4종, 60만장을 발행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우표 발매는 8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우표 4종. 이번 시리즈에는 월정사 전나무길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는 '길'이 조명됐다.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길 중에서 경치를 즐기며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는 제주 올레길과 월정사 전나무숲길, 하동 십리벚꽃길, 영덕 블루로드를 우표에 담았다.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해안 길, 산길, 들길 등을 연결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강원도 평창 소재 월정사의 80년 이상 된 전나무 1,800여 그루가 빼곡하게 숲을 이뤄 상쾌함을 주는 길로 유명하다.

'하동 십리벚꽃길'은 50~70년 수령의 벚나무 1,200여 그루가 4월이면 도로 양편에서 벚꽃을 피워 터널을 이루는 길로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들어가는 구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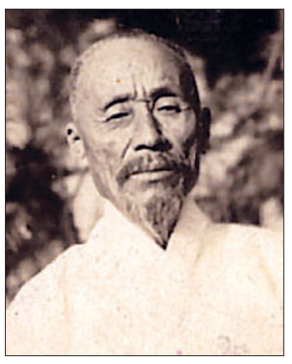
'영덕 블루로드'는 영덕의 명소와 수려한 해안 풍경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해안 도보 길로 '환상의 바닷길'로 알려져 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우표를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무용 거목 한성준의 몸짓을 기억하다

제3회 전통무용제전 '한성준 춤' 집중 조명


'우리 춤의 아버지' 한성준의 모습


한성준이 복원해 한영숙에게 전한 전통 춤 '학'의 공연 모습.

한성준(1874~1941)은 한국 무용의 거목이다. '우리 춤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100여 가지 전통춤을 집대성하고, 이를 기반해 새로운 춤을 창작했다. 한국 전통 무용은 19~20세기에 거쳐 한성준을 통해 재정립된 것은 분명하다. 그의 춤 맥은 손녀 한영숙과 조선 제일 춤꾼 최승희에게 이어졌고 이후 김매자, 이애주, 국수호 등 현대 전통무용 대가들에게 오롯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성준은 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특히 수덕사는 그의 춤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곳이다. 지난해 열린 '내포 전통춤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 진단과 정책적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은 "한성준 선생이 1890년께 수덕사에 입산해 3년간 머물며 범패와 승무를 비롯한 다양한 재를 통해 불교의식을 접하며 불교 전통을 배웠다. 수덕사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기예를 재정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성준은 당대 최고 선지식 만공 선사와도 깊은 교류를 나눴고, 수덕사 대웅전 불사에도 시주하기도 했다.

한국 무용의 선지식 한성준의 춤을 재조명하는 무대와 학술 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회장 성기숙)와 춤자료관 연낙재는 8월, 9월 서울과 충남 내포시에서 제3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을 개최한다. 서울행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연낙재 세미나실 등에서 진행된다.

8월 25~29일 서울 일원서 한·중·일 전문가 대거 참여 '학' 악보 발굴, 재창작 공연 아시아 무용 대한 세미나도

'한성준 춤의 시원과 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무용제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의 무용가와 학자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근대 시기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활동공간을 넓혀갔던 한성준의 예술적 여정과 그 이후 춤 세대의 후속 활동이 남긴 무용사적 흐름을 반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최초의 무용극 '학(鶴)'의 복원 공연이다. '학'은 신무용가 조택원이 한성준에게 전통 학춤을 배워 일본의 근대음악가 다카기 도로쿠에게 작곡을 의뢰해 창작한 한국 최초의 무용극이다. '학'의 악보가 일본에서 발굴, 연낙재 기증을 통해 한·일 공동 합작으로 복원, 재창작된다.

한성준·한영숙으로 이어져 온 '전통 학춤'이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의 지도로 무대에 오른다. 한국무용가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을 비롯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발레리노 이원국 등이 참여한다.

여러 장르로 퍼진 '학'의 재창작 무대에는 일본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마츠모토 뎃페이, 소프라노 마츠다 치에의 라이브음악이 곁들여진다.

다카시 도로쿠가 작곡한 '학'의 악보를 발굴한 후지이 고키 시마네대학 교수가 음악적 학술고증,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무용적 학술고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되는 '우리 춤의 맥·혼·몸짓'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일곱 명의 중견무용가들이 출연해 자웅을 겨룬다. 임현선 대전대 교수의 '태평무(강선영류)'를 비롯해 정혜진 서울예술단 예술감독의 '고풍',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살풀이춤', 윤미라 경희대 교수의 '진쇠춤', 채향순 중앙대 교수의 '장고춤', 배상복 전 제주도립무용단 예술감독의 '신명', 김충한 전 정동극장예술단 예술감독의 '가사호접' 등 다채로운 춤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중 우리 춤문화유산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27일 무대에서는 한성준 춤을 시원으로 중국 조선족무용사회로 파급돼 오늘까지 계승되는 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준-한영숙의 춤맥을 이어온 故 정재만을 사사한 중국의 대표적 조선족 무용가 한현걸 북경무도대학 교수의 '살풀이춤', 중국 조선족무용의 메카 연변대학교 김영화 교수의 '장고춤' 공연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배가한다.

아시아의 근대 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조명하는 국제무용학술포럼도 마련됐다. 연낙재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근대의 도래로 직면한 서구적 충격을 아시아 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성준 춤의 원형에서 창조적 지평확산으로 흐른 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무령왕릉서 찾은 찬란한 백제 왕실 문화

공주博 12월 4일까지 '무령' 특별전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종만)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특집별시회 '무령-King Muryeong'을 오는 12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웅진 천도 후 혼란했던 정국을 안정시켜 백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한 무령왕의 생애와 정치적 업적을 새로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무령왕은 40세에 즉위한 이후 523년 붕어 전까지 개혁을 통한 왕권강화와 민심 안정을 이루고, 519년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갱위강국(更爲强國,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을 선포하기까지 치열한 삶을 산 위인이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더불어 3부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인 '사마에서 무령으로'에서는 무령왕의 출생부터 즉위, 붕어에 이르는 무령왕의 생애를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무령왕이 이룩한 정치적 업적과 갱위강국의 의미를 되새긴다.

1부 '제사와 묘지석'에서는 무령왕릉의 널길 출토품들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본다. 널길에서 발견된 제대와 제사용품, 삼국시대의 유일한 묘지석, 지신과의 거래를 밝힌 매지권과 오수전, 진묘수를 전시한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국보 154호 '금제관식(왕)'

무령왕릉 출토 유물 전시 국보 금제 관식 등 80점

2부 '무령왕릉과 목관'에서는 벽돌무덤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벽돌의 종류 및 특징과 함께 무령왕과 왕비 목관의 관재, 관의 구조와 표면처리, 관장식의 종류와 특징 등을 살펴본다. 3부 '권위의 상징물 - 왕과 왕비의 부장품'에서는 부장품의 위치와 의미, 세트화된 장신구를 포함한 무령왕과 왕비 부장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한다.

공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문헌기록과 무령왕릉 출토품을 통해 무령왕의 치열한 삶과 무령왕이 이룬 갱위강국의 의미와 실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41)850-636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